

## 『大學』의 引用 詩 研究

— 集註와 小註를 중심으로 —

陳 禮 淑\*

<目次>

I. 緒論	IV. 齊家·治國章과 詩 引用
II. 新民章과 詩 引用	V. 治國·平天下章과 詩 引用
III. 止於至善章과 詩 引用	VI. 結論

<국문 초록>

본고는 『大學』에 인용된 『詩經』의 시들에 대해 集註와 小註를 중심으로 考察하고, 이 시들이 『大學』의 修己治人的 논리 구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新民章에서는 修己治人的 典範이라 할 수 있는 文王을 찬양한 詩를 引用하여 ‘明明德’과, ‘新民’, ‘止於至善’의 三綱領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임을 言明하고 있다. 다음으로 止於至善章은 별도의 주장이 없이 모두 詩句만 인용해서 修己治人的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매우 정밀하며,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어 『大學』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중요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齊家·治國章은 세 편의 시를 연속적으로 인용하여 治國은 齊家를 전제로 함을 밝히고 있다. 教化는 안에서 밖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니, 齊家が 修身에 달려 있고 治國이 齊家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治國·平天下章은

\* 국립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겸임교수 / jinyesuk@naver.com

지도자의 絜矩之道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大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章句로, 세 편의 『詩經』 詩를 인용하여 治國이 平天下의 전제가 됨을 비유적으로 밝히고 있다.

『大學』의 논리적 체계는 明明德의 문제가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결국 修身論으로 귀착된다. 또한 이 修身論은 明明德과 不可分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新民, 止於至善의 治人論과 하나로 맞물려 있다. 결국 『大學』에 인용된 『詩經』의 시들은 修己治人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었으며, 몇몇 핵심적인 의미 강화가 필요한 章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용시들이 『詩經』의 본의와 달리 斷章取義하여 인용되고 있다. 이들은 文王을 修己治人의 典範으로 보는 전통적 聖人觀을 계승하고 있는데, 朱子の 集註와 小註는 이런 목적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大學, 詩經,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三綱領, 八條目, 修己治人論

## I. 緒論

『大學』은 원래 『禮記』의 한 부분이었으나 朱子가 이 부분을 분리하여 『大學章句』를 저술한 뒤부터 四書로 일컬어지면서 『論語』, 『孟子』, 『中庸』과 함께 유학의 중요한 경전이 되었다. 朱子는 『大學』이 曾子가 孔子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을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그 門人들이 전술하여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고, 이를 중시하여 일부 원문을 수정하고, 편차를 정리하여 자신의 주석을 달아서 初學者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송대 이후 성리학이 융성하면서 成人이 되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입문서로 강조되었다.

『大學』은 大人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길을 안내하는 학문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三綱領이라고 한다. 즉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선천적인 明德을 밝게 드러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또한 至善의 상태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八條目を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순서로 삼고 있다. 유학에 있어서 이상 세계의 건설이란 ‘修身’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는 ‘平天下’라는 至善의 세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大學』의 일관된 논리가 修身을 바탕으로 하는 治人이라면, 이 『大學』의 修己治人論을 뒷받침하는 고전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詩經』의 詩이다. 이 詩들은 정치, 교육,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中正和平한 정감의 표현과 溫柔敦厚한 인격의 수양에 맞물려 있고, 사회적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고 풍속을 쇄신하는 정치 교화의 교본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大學』에서 지향하는 修己治人の 길과 일맥상통하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자연과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귀중한 寶庫로 인식된 『詩經』의 詩들을 인용함으로써 자칫 가치편향적인 논리로 경직될 수 있는 위험을 탈피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과 연결하여 현실과 괴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 세계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게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유학 경전 중 하나인 『詩經』의 원형은, 西周初(BC 1100) 무렵에서 春秋時代 中期(BC 600) 무렵에 이르는 약 600년의 오랜 세월 속에서 황하 유역의 민중을 위시한 각 계층의 삶의 哀歡을 노래로 표현한 韻文을 모은 시집이었다. 민간에서 채집한 歌謠와 그 시대의 지성인 士大夫들의 작품은 물론 왕실의 연회와 의식행사, 종묘제례악의 가사가 고루 수집

되어 있었는데, 孔子가 제자들의 교육용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경전을 정리하면서 『詩』·『書』·『易』 三經으로 尊崇되었으며, 詩三百에 관한 孔子의 단편적인 評語로 인해 그 권위가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大學』을 비롯한 여러 유학 경전에서 다양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大學』은 비록 다른 경전에 비해 引詩의 분량은 적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修己治人의 논리구조가 매우 심도 있고 체계적이며, 시 인용을 통해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引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大學』의 인용 시 또한 나름의 연구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시경론 및 시경학에 대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金興奎의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沈慶昊의 「朝鮮 詩經學에 관한 小考」(『中語中文學』 제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87.) 및 「茶山の 國風論」(『韓國學報』 14, 일지사, 1988.), 朴茂瑛의 「白湖 尹鑄의 詩經論 研究」(『한국한문학연구』 제9·10합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7.), 任侑旻의 「徐命膺의 文學觀 및 詩經論」(『한국한문학연구』 제9·10합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7.), 崔錫起의 「星湖 李瀼의 詩經學」(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李炳燦의 「韓國의 詩經論 研究」(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등이 있다. 이밖에 李康範의 「漢代 今古文 詩經學 研究」(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李再薰의 「朱子 詩經學 研究」(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권정안의 「詩經 周南의 儒學的 理解, <關雎>, <葛覃>, <卷耳>의 修身論을 중심으로」(『儒教思想文化研究』 제54집, 韓國儒敎學會, 2013.) 등도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集註와 小註를 중심으로 『大學』에서 인용한 『詩經』의 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詩經』에서의 본래적 의미와 인용으로 인해 새롭게 부여된 의미를 비교, 분석함으

로써 詩 引用의 효과와 아울러 해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열리는 가치 체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新民章과 詩 引用

『大學』에서는 총 12편의 시가 인용되었는데, 10章의 章句 중에서 시를 인용한 것은 네 곳이다. 新民章에서 시 한 편을 인용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3장 止於至善章에서 5편, 9장 齊家·治國章에서 3편, 10장 治國·平天下章에서 3편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

『大學』의 첫 번째 章句인 明明德章은 詩를 인용하여 빗대어 표현하기 보다는 『書經』의 「康誥」, 「太甲」, 「堯典」을 引用하여 ‘明德을 스스로 밝히는 뜻’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sup>1)</sup> 그 외 4장에서 8장까지는 간혹 孔子와 曾子, 俗語를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그 뜻을 서술하여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詩를 引用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거나 논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곳은 新民章부터이다. 新民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三綱領 중 두 번째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明明德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明德은 사람마다 똑같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德性인데, 자신의 명덕을 밝힌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이끌어 과거의 허물을 떨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民을 능동성이 배제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니다. 『大學』에서는 “새로워지는 백성을 진작하라.”<sup>3)</sup>는 「康誥」의 글을 인용하여 백성들의 자발성 또한

1) 朱熹, 『大學章句』, 1章, “結所引書, 皆言自明己德之意.” 참조.

2) 新民보다는 親民이 『大學』의 본래 의미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본 논문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朱子の 견해에 따라 新民으로 풀이하였다.

3) 朱熹, 『大學章句』, 2章, “康誥曰, 作新民.”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심장이 새롭게 뛰고 저절로 춤추듯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作’이라고 볼 때<sup>4)</sup> 자신의 밝은 덕을 밝게[明明德] 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감화시켜 자발적, 능동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즐겁게 동참하게 할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大學』의 인용 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周雖舊邦 周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其命維新 그 命이 새롭다.

여기서 인용한 시는 「大雅·文王之什」의 「文王」 제1章의 구절 중 3, 4句인데,周公이 文王의 덕을 追述하여 周나라 왕실에서 천명을 받아 殷나라를 대신한 것이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았음을 밝혀서 成王을 경계한 것이다. 文王이 이미 별세하였으나 그 神이 위에 있어 하늘에 밝게 계시니, 이 때문에 주나라가 비록 后稷이 봉해진 뒤로부터 천여 년이 지났으나, 後孫들이 그 福澤을 입어서 天命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sup>5)</sup>

『禮記』, 「禮運」의 大同社會는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과 윤리적 조건 등이 잘 갖추어진 유학적 이상사회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조건을 다 갖추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현실이지만, 유학의 역사에서 그 理想은 언제나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왔다.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바람직한 조건들을 성취하고, 부정적인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변화운동이 부단히 계속되어져 왔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조건들을 문화로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요청과 현실의 문제는 줄지 않고

4) 朱熹, 『大學章句』, 2章, 集註, “鼓之舞之之謂作, 言振起其自新之民也.”

5) 朱熹, 『詩集傳』, 「大雅·文王」, “周公, 追述文王之德, 明周家所以受命而代商者, 皆由於此, 以戒成王. 此章, 言文王既沒而其神在上, 昭明于天. 是以, 周邦, 雖自后稷始封, 千有餘年, 而其受天命, 則自今始也. 夫文王在上, 而昭于天, 則其德顯矣, 周雖舊邦, 而命則新, 則其命時矣.” 참조.

역사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왔다. 유학적 지성이란 그 속에서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어 당대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실천한 인간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 인류가 가장 절실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 그에게 聖人이란 역사적 지성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며,<sup>6)</sup> 그 문제를 남보다 먼저 각성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선각적이고 선구적인 지성으로 부르는 것이다.<sup>7)</sup>

유학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지성을 堯·舜·禹·湯·文·武·周公으로 천명하고 그들의 업적과 도덕성, 신성하고 창조적인 삶을 존송하여 이를 典範으로 삼고 있다. 孔子는 특히 文王의 지극한 덕<sup>8)</sup>과 周公의 문화창달의 공<sup>9)</sup>을 존송하고 이를 계승하여 심화, 확대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할 정도였다.<sup>10)</sup>

「文王」에서 인용한 시는, 文王이 전일하게 쉬지 않고 修身하는 모습은 덕으로 드러나고,<sup>11)</sup> 그 덕이 저절로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확대되어 결국 平天下로 구현됨을 강조하여 이를 修己治人の 논리구조로 풀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朱子는 이 시에서 보여주는 경지가 바로 新民의 극치라고 하면서 이에 맞춰 천명도 새로워진 것이라 했는데,<sup>12)</sup> 이는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文王에 이르러서야 그 덕을 새롭게 하여 백성에게까지 미쳐서 비로소 천명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北溪 陳氏는 『大學』 傳文 2章의 三節에 순서와 단계가

- 
- 6) 『論語』, 「雍也」,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 其猶病諸.” 참조.
- 7) 『孟子』, 「萬章 上」, “天之生此民也, 使先知, 覺後知, 使先覺, 覺後覺也, 予, 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 覺斯民也, 非予覺之, 而誰也.” 참조.
- 8) 『論語』, 「泰伯」, “三分天下, 有其二, 以服事殷, 周之德, 其可謂至德也已矣.” 참조.
- 9) 『論語』, 「述而」,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참조.
- 10) 『論語』, 「子罕」, “子畏於匡, 曰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 其如予何.” 참조.
- 11) 朱熹, 『中庸章句』, 26章, “蓋曰文王之所以爲文也, 純亦不已.” 참조.
- 12) 『大學章句大全』, 2章, 小註, “朱子曰, 是新民之極, 和天命也新.”

있다고 하여, ‘제1절 盤銘’은 ‘新民의 근본’을 말한 것이고, ‘제2절 康誥’는 ‘백성을 진작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말한 것이며, ‘제3절 文王之詩’는 ‘新民의 효험의 극치’를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3)</sup> 그리하여 ‘제4절’은 ‘그 極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sup>14)</sup>이라 하여, 君子는 自新과 新民을 그 極인 至善의 경지에 그치게 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朱子는 ‘明明德’을 湯王의 日新에 비유하고, ‘新民’을 文王이 새로 천명을 내려 받은 데 비유한 것이, 모두 至善의 경지에 나아가 머물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sup>16)</sup> 이것은 바로 傳文 3장의 ‘止於至善’과 연결되고 있다. 玉溪 盧氏는 ‘止至善’과 ‘用其極’의 의미가 서로 통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지극한 善에 가서 멈춰야’ 비로소 어수선하지 않게 되고, (明明德과 新民에 있어) ‘극치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늘에서 稟賦 받은 明德이) 고목이나 불 꺼진 죽은 재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7)</sup>

이처럼 『大學』의 2장인 新民章에서는 修己治人の 典範이라 할 수 있는 文王을 찬양한 詩를 斷章取義의 형식으로 引用하여, ‘明明德’과 ‘新民’, ‘止於至善’의 三綱領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되도록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Ⅲ. 止於至善章과 詩 引用

『大學』 新民章에 곧바로 이어진 止於至善章은, 『詩經』의 詩들을 가장

- 
- 13) 『大學章句大全』, 2章, 小註, “北溪陳氏曰, 三節有次第, 盤銘, 言新民之本, 康誥, 言新民之事, 文王詩, 言新民成效之極.”
- 14) 『大學』, 2章, “是故, 君子, 無所不用其極.”
- 15) 朱熹, 『大學章句』, 2章, 集註, “自新, 新民, 皆欲止於至善也.”
- 16) 朱熹, 『大學章句』, 2章 4節, 小註, “明明德, 便要如湯之日新, 新民, 便要如文王之周雖舊邦, 其命維新, 各求止於至善之地而後已也.” 참조.
- 17) 玉溪盧氏, 『大學章句大全』, 2章 4節, 小註, “前言止至善, 此言用其極. 二義互相發, 止則不紛紛擾擾矣, 用則非枯木死灰矣.” 참조.

많이 인용하고 있는 章句이기도 하다. 「商頌·玄鳥」와 「小雅·緡蠻」, 「大雅·文王」과 「衛風·淇澳」, 「周頌·烈文」 등 5편의 詩들을 인용하여 ‘머 무름’과 ‘德目’, ‘공효’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商頌·玄鳥」에서 인용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邦畿千里    나라의 기내 천리여,  
惟民所止    백성들이 멈추어 사는 곳이다.

商頌은 종묘에 제사하는 음악인데, 「玄鳥」는 高宗을 제사 지내는 것으로, 商의 시조인 契의 탄생 설화와 연관이 깊다. 邦畿千里는 천자의 직할 영지로 천하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다. 『大學』에서는 이 시를 斷章取義의 방식으로 인용해서 백성들이 천자의 직할 영지에 머물러 살듯이 모든 사물에도 마땅히 머물러야 할 합당한 도리가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sup>18)</sup>

止於至善章에서는 「玄鳥」에 이어서 「小雅·緡蠻」을 인용하고 孔子가 說詩한 말씀으로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인용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緡蠻黃鳥    면만히 우는 황조여,  
止于丘隅    언덕에 앉아 있구나.

이 시는 본래 微賤한 신하가 亂世를 풍자한 시<sup>19)</sup>로, 미천하고 노고하여 의탁할 곳을 생각한 자가 새의 말로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면만히 우는 황조가 스스로 말하기를 ‘언덕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18) 『大學章句大全』, 3章, 小註, “新安陳氏曰, 引詩謂邦畿, 爲民所止之處, 以此事物各有所當止之處. 且泛說止字.” 참조.

19) 『毛序』, 「小雅·緡蠻」, “緡蠻, 微臣刺亂也. 大臣, 不用仁心, 遺忘微賤, 不肯飲食教載之. 故, 作是詩也.” 참조.

고 하였으니, 길이 멀고 수고로움이 심한 것이다.<sup>20)</sup>

그러나 『大學』에서는 「小雅·緝蠻」의 일부 구절만 斷章取義하고, 거기에 “그침에 있어 그 그칠 곳을 아니, 사람으로서 새만 못해서야 되겠는가.”<sup>21)</sup>라는 孔子의 말씀을 덧붙여 ‘止’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詩에서의 ‘止’는 ‘黃鳥가 앉아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데 비해, 『大學』에서는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쳐야 할 곳’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詩의 本義와는 무관하게 사람이 마땅히 머무를 바를 알아야 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며<sup>22)</sup>, 그 다음에 인용한 시편과 더불어 ‘어디에 머물 것인가’와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만 하는가’의 논리적 연결 구조의 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緝蠻」에 뒤이어 引用한 詩는 또다시 「文王」으로, 4章 중 1, 2句를 인용하여 修己治人の 典範인 文王에 대한 찬사로 되돌아간다. 다만 新民章의 文王에 대한 찬사가 자신의 明明德을 토대로 新民을 자연스럽게 행한 것에 집중되었다면, 이와 달리 여기에서는 止於至善의 토대가 되는 ‘敬’이란 근본적인 마음 자세와 ‘仁·敬·孝·慈·信’이라는 세부적인 덕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인용한 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穆穆文王 穆穆하신 文王이여,  
於緝熙敬止 아, 敬을 계속하여 밝히셨도다.

그런데 이 시를 인용함에 있어 ‘於緝熙敬止’의 ‘止’의 용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朱子는 「文王」의 ‘止’를 語辭로 보았고, ‘緝’과 ‘熙’는 文王의 德이 敬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밝혔음’을 나타내는 詩語라고 하였는데,<sup>23)</sup> 같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大學』에서는 이를 다르게 주석하고

20) 朱熹, 『詩集傳』, 「小雅·緝蠻」, “此, 微賤勞苦, 而思有所託者, 爲鳥言以自比也. 蓋曰, 緝蠻之黃鳥, 自言止於丘阿而不能前, 蓋道遠而勞甚矣.”

21) 朱熹, 『大學章句』, 3章,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22) 朱熹, 『大學章句』, 3章, 小註, “新安陳氏曰, 此, 此人當知所止, 重在知字.”

있다.

緝은 계속함이요, 熙는 光明함이다. 敬止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치는 바에 편안함을 말한다. 이것을 인용하여 聖人の 그침이 至善 아님이 없으나 다섯 가지는 바로 그 條目的 큰 것임을 말씀하셨다.<sup>24)</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詩를 斷章取義하여 인용한 순간, 그 인용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詩句의 뜻이 詩 本意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것이 바로 引詩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文王」을 인용하여 ‘止於至善’의 뜻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大學』 止於至善章의 해석도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穆穆文王      穆穆하신 文王이여,  
於緝熙敬止    아, 계속하여 밝혀서 공경하여 그치셨도다.

이 뒤로 이어지는 詩句는 新民의 내용이지만 『大學』 3장에서는 이를 두 구만 斷章取義하여 ‘敬止’란 시어를 주목하고 修身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修身은 심신을 닦는 것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는 더 키워나간다는 뜻이다. 知的인 영역과 함께 情的인 영역, 즉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의 영역을 키워나가되 마음의 부정적 요소를 닦아내고 의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이니, 文王이 修身을 통해 지극한 덕을 갖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치시고, 人臣이 되어서는 敬에 그치시고, 人子가 되어서는 孝에 그치시고, 人父가 되어서는 慈에 그치시고, 國人과 더불어 사귄데 信에 그치셨다.<sup>25)</sup>

23) 朱熹, 『詩集傳』, 「大雅·文王」, “緝, 續, 熙, 亦不已之意. 止, 語辭.” 참조.

24) 朱熹, 『大學章句』, 3章, 集註, “緝, 繼續也, 熙, 光明也. 敬止, 言其無不敬而安所止也. 引此而言, 聖人之止, 無非至善, 五者乃其日之大者也.”

25) 朱熹, 『大學章句』, 3章,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 止於仁, 爲人

文王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선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를 지속시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文王의 修身은 결국 ‘敬’ 한 글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관계를 통해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文王의 ‘敬’은 군신의 관계에서는 어짊과 공경으로, 父子의 관계에서는 자애와 효도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이름 지어진다.

그리하여 文王은 각각의 관계 속에서 至善의 상태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으니, 이는 修身의 완성된 모습일 뿐 아니라 ‘~다움’으로 표현되는 正名의 극치이자 인륜의 典範인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설령 至善의 상태에 간혹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專一하게 부단히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한결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편안하고, 그칠 데를 알아 의심함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자체가 즐거워야 하는 것이니,<sup>26)</sup> 文王이 체득한 덕의 경지가 至難至高하며 至廣至大한 것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빛을 밝히고 경건하게 머무는 것’이 ‘止於至善’ 하는 근본이고, ‘仁·敬·孝·慈·信’은 ‘止於至善’하는 덕목이 되는 것이다.<sup>27)</sup>

止於至善章에서 「文王」에 이어서 인용된 시는 「衛風·淇澳」으로 총 3장 중 제1장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瞻彼淇奥	저 淇水 벵랑을 보니
蒹竹猗猗	푸른 대나무 猗猗하도다.
有斐君子	문채 나는 군자여!

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 爲人父, 止於慈, 與國人交, 止於信.”

26) 朱熹, 『大學章句』, 3章, 集註, “敬止言其無不敬而安所止也. 引此而言聖人之止, 無非至善, 五者, 乃其目之大者也. 學者於此, 究其精微之蘊, 而又推類以盡其餘, 則於天下之事, 皆有以知其所止而無疑矣.” 참조.

27) 『大學章句大全』, 3章, 小註, “節齋蔡氏曰, 緝熙敬止者, 所以爲止至善之本, 仁敬孝慈信, 所以爲止至善之目.”

如切如磋	잘라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
如琢如磨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하다.
瑟兮僩兮	치밀하고 굳세며
赫兮喧兮	빛나고 짐작으니
有斐君子	문채 나는 군자여!
終不可諠兮	끝내 잊을 수 없다.

『大學』에서 斷章取義하지 않고 한 장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 詩는 한 章이 9句로 이루어진 긴 시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章 전체의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있어 그 중요성과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그 내용으로 볼 때 「淇澳」 3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인용하여 그 전체적인 뜻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詩序』에 의하면 「衛風·淇澳」은 衛나라 사람들이 武公의 덕을 찬미하여 지은 것으로, 武公의 학문과 인격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낀 감흥을, 푸른 대나무가 처음 나와서 아름답고성한 것을 본 느낌에 이입하여 興을 일으킨 것이다. 또 武公이 내면의 덕이 드러나는 威儀와 文彩가 있는데다 신하들의 規諫을 잘 들어주어 禮로 스스로를 단속하였기 때문에 周나라 조정에 들어가 왕의 卿士가 되어 周王室을 도왔는데, 이를 찬미하여 지었다고 한다.<sup>28)</sup>

『大學』에서는 「淇澳」을 인용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如切如磋는 학문을 말한 것이요, 如琢如磨는 스스로 행실을 닦음이요, 瑟兮僩兮는 마음이 두려워함이요, 赫兮喧兮는 겉으로 드러나는 威儀요, 문채 나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다는 것은 盛德과 至善을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sup>29)</sup>

28) 『詩小序』, 「衛風·淇澳」, “淇澳, 美武公之德也. 有文章, 又能聽其規諫, 以禮自防. 故能入相于周, 美而作是詩也.” 참조.

29) 朱熹, 『大學章句』, 3章,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僩兮者, 恂慄也, 赫兮喧兮者, 威儀也, 有斐君子終不可諠兮者, 道盛德至善, 民之不

朱子は「淇奥」이 『시경』을 인용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明明德하는 자의 止於至善을 밝힌 것으로 보았는데, 이 중 道學과 自修는 이것을 얻게 된 바의 이유를 말한 것이고, 恂慄과 威儀는 德容의 表裏의 성함을 말한 것으로, 마침내 그 실체를 가리켜 탄미한 것이라 하였다.<sup>30)</sup> 그리하여 止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도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려준다고 보았다.

자르기만 하고 갈지 않으면 지극히 선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며, 쪼기만 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역시 지극히 선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엄밀하고 강하고 의연하면 곧 誠敬이 마음속에 있게 되지만 빛나고 성대하게 드러나고 威儀와 光輝가 밖에 나타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또한 至善이 백성이 잊지 못하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만약 온전한 至善이 아니라면, 어떻게 백성으로 하여금 오래 잊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sup>31)</sup>

「淇奥」은 내면의 덕성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남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이 止於至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詩이다. 개인의 내적 성숙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 외적으로도 빛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개인의 삶에 큰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적 지성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그러한 역사성은 오랜 시간 속에서 생명력과 가치를 갖는다. 그리하여 『大學』에서는 「淇奥」에 이어 「周頌·烈文」의 시 인용으로 止於至善章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 “아! 전왕을 잊지 못한다.” 하였으니, 군자는 그 전왕의 어

能忘也.”

- 30) 朱熹, 『大學章句』, 3章, 集註, “引詩而之由釋之, 以明明德者之止於至善, 道學自修, 言其所以得之, 恂慄, 威儀, 言其德容表裏之盛, 卒乃指其實而歎美之也.”
- 31) 『大學章句大全』, 3章, 小註, “朱子曰, 切而不磋, 未到至善處, 琢而不磨, 亦未到至善處. 瑟兮僖兮, 則誠敬, 存於中矣, 未至於赫兮喧兮, 威儀輝光, 著見於外, 亦未爲至善至於民之不能忘. 若非十分至善, 何以使民久而不能忘.”

좁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함을 친하게 여기며, 소인은 즐겁게 해주심을 즐거워하고 이롭게 해주심을 이롭게 여기니, 이 때문에 세상에 없는데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sup>32)</sup>

여기에서 前王은 文王, 武王을 이르고, 君子는 後賢과 후대의 왕을 말하며, 小人은 후대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는 前王이 백성을 새롭게 한 新民의 공효가 至善에 머물러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이 없게 하였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시어 세상에 없어도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더욱 오래도록 잊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sup>33)</sup>

이상과 같이 『大學』의 止於至善章은 총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詩를 인용해서 修己治人の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引詩의 논리가 매우 정밀하며,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어 『大學』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중요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章은 經文 1장의 三綱領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經文 4, 5장의 八條目까지도 겸해서 풀이하고 있다. 그 중 ‘學’은 致知와 格物의 일이고, ‘自修’는 誠意·正心·修身의 일이라 하겠다. 또한 군자와 소인이 그 친함을 친하게 여기고 이롭게 해주심을 이롭게 여기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교화가 家·國·天下에 미쳤음을 알려 준다.<sup>34)</sup>

즉 인간을 위시하여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머물러야 할 至善의 경지가 있으니, 이에 따라 사람도 머물러야 할 至善의 경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 실질적인 경지를 총목과 세목으로 지적하고, 切磋琢磨라는 止於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이 前代에

32) 朱熹, 『大學章句』, 3章, “詩云, 於戲. 前王不忘, 君子, 賢其賢而親其親, 小人, 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

33) 朱熹, 『大學章句』, 3章, 集註, “前王, 謂文武也. 君子, 謂其後賢後王, 小人, 謂後民也. 此, 言前王所以新民者, 止於至善, 能使天下後世, 無一物不得其所, 所以既沒世而人思慕之, 愈久而不忘也.”

34) 朱熹, 『大學章句』, 3章, 小註, “雲峯胡氏曰, 此章, 釋明德新民之止於至善, 兼釋知止能得, 又兼釋八者條目, 其中, 學是致知格物之事, 自修是誠意正心修身之事, 親其親以致利其利, 是化及於家國天下.” 참조.

이어 받은 위대한 정신과 업적 등을 계승하고, 이 역사적 위업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止於至善章은 「玄鳥」와 「緝蠻」, 「文王」, 「淇奥」, 「烈文」의 詩를 의도적으로 斷章取義하거나 통째로 한 章을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머물러야 할 높은 도덕적 경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면서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引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IV. 齊家·治國章과 詩 引用

『大學』 3장 止於至善章에 곧바로 이어진 4장은 本末을 풀이한 것으로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즉 孔子의 말씀을 인용하여 爭訟은 아무리 해결을 잘하더라도 말단의 지엽적인 것인데 반해, 明明德은 爭訟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근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sup>35)</sup> 5장은 ‘知之至’라는 결론만 나와 있고 본 문장이 빠져 있어서 朱子が 亡失된 것을 보완하는 補亡章을 지어 格物·致知의 뜻을 밝혔다. 6장은 誠意章이고 7장은 正心·修身章이며, 8장은 修身·齊家를 풀이하고 있는 修身·齊家章인데, 4장에서 8장까지는 모두 詩를 인용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9장인 齊家·治國章에서는 「周南·桃夭」와 「小雅·蓼蕭」, 「曹風·鳩鳴」 등 세 편의 詩를 연속적으로 인용하여, 治國은 齊家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周南·桃夭」의 시 인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朱熹, 『大學章句』, 4章,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無情者, 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 참조.

桃之夭夭    복숭아나무의 어리고도 예뻐이여!  
 其葉蓁蓁    그 잎이 무성하고 무성하도다.  
 之子于歸    이 아가씨 시집감이여!  
 宜其家人    그 집안사람들을 화순하게 하리로다.

이 시는 「桃夭」의 세 번째 章으로, 斷章取義하지 않고 한 장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되어 齊家에 있어 婚姻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詩經』의 婚姻詩는 대부분 사회적 지도층의 혼인과 관련지어 지어졌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혼인을 다룬 경우도 있으니, 바로 「周南」의 「桃夭」이다. 복숭아꽃이 피는 봄에 남녀가 혼인하는 것을 읊은 이 시에 대해 朱子は “文王之 교화가 집안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남녀가 바루어지고 혼인을 제 때에 하는 것”<sup>36)</sup>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남녀의 혼인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교체해 주는 인륜의 大事이므로, 제 나이에 혼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된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桃夭」는 文王之 교화가 가정에서 국가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 시의 내용상 일반 백성들의 혼인을 읊은 시이자 한 집안의 齊家에 대한 기원이자 축복의 시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桃夭」 3章 중 마지막 장만 인용했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桃夭」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여 대표하는 구절로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장의 복숭아의 곱고 고운 ‘꽃’은, 막 시집가는 ‘어리고 예쁘면서도 어진 아가씨’를 상징하며, 제2장의 많고 많은 ‘열매’는, 그 아가씨가 어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家室을 이루고 화순하게 할 ‘남편에 걸맞은 현명한 배필로 성장할 여성’이 될 것임을 상징한다. 또한 제3장의 무성하고 무성한 ‘잎’은 그 현명한 배필이 끝내 온 집안사람들을 和順하게 하고 일가를 번성시켜 ‘내치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는 幽閒 貞靜한 덕이 있는 여성’으로 성장, 완성될 것임을 상징한다.

36) 朱熹, 『詩集傳』, 「周南·桃夭」, “文王之化, 自家而國, 男女以正, 婚姻以時.”

이러한 자연과 여성의 대비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 배치되어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질서를 되돌아보게 한다. 복숭아의 ‘꽃 → 열매 → 잎’의 심화·발전적 구도를 통해 자연의 전개 순서와 여성의 성장 순서를 연결하면서, 이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桃夭」의 ‘아가씨[之子]’는 殷末의 亂世이자 文王의 治世에 살고 있는, 새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하는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현실에 처한 꽃다운 아가씨라 할 수 있다. 이제 갓 시집가는 어린 신부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도 막중한데, 이는 文王과 太姒를 본받아서 집집마다 齊家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기대이며, 그 당시 여성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桃夭」는 집안을 화순하게 하고 흥기시킬 여성의 婦德을 요망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바람직한 齊家의 여성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 「桃夭」는 혼인을 통해 세대를 교체하는 시이며, 일반 男女의 혼인이 失期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國家에 있어 중차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國治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大學』에서 「桃夭」에 이어 齊家·治國의 예로 인용하고 있는 시는 바로 「小雅·蓼蕭」인데, 傳文에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형에게도 마땅하고 아우에게도 마땅하다.” 하였으니, 형에게 마땅하고 아우에게 마땅한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蓼蕭」는 본래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함에 천자가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 은혜로움을 보였으므로 그 은혜에 감읍하여 노래한 것인데,<sup>39)</sup>

37) 陳禮淑, 「陽村 權近의 『詩淺見錄』 研究」,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151-153. 참조.

38) 朱熹, 『大學章句』, 9章, “詩云, 宜兄宜弟, 宜兄宜弟而后, 可以教國人.”

여기서는 ‘宜兄宜弟’한 시구만을 斷章取義하여 인용하고 있다. 『大學』에서는 이 시를 인용하여 형제간에 형에게 잘하고 동생에게 잘하여, 서로 우애하고 공경한다면 집안이 가지런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蓼蕭」에 뒤이어 「曹風·鳩鳴」를 斷章取義로 인용하여 齊家·治國章을 끝맺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경』에 이르기를 “그 威儀가 어그러지지 않는지라 이 사방 나라를 바르게 한다.” 하였으니, 그 부자와 형제 된 자가 족히 본받을 만한 뒤에야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다.<sup>40)</sup>

사방의 나라를 바르게 하고, 仁으로 천하를 통솔함은 德治의 최고점이다. 그 威儀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가까운 부자·형제가 본받게 되고, 집안이 가지런히 다스려짐에 남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일반 백성들이 본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齊家·治國章에서 『詩經』을 잇달아 인용하면서 처음에는 「桃夭」의 ‘之子宜家’를, 다음에는 「蓼蕭」의 ‘宜兄宜弟’를 인용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인용 순서에 대해 朱子は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대개 천하에서 교화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부인이고, 인정에서 매번 잃기 쉬운 사이가 형제간이다. 제가에 있어 능히 며느리로 하여금 집안사람에게 잘하게 하고, 또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 곧 그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또 마땅히 위엄과 예의가 어긋나지 않아서 족히 사방의 나라를 바로잡을 만하게 된다. ‘수신에서 제가’하거나 ‘제가에서 치국 및 평천하’하는 데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教化이고 하나는 推己이다. 教化는 몸소 가르쳐 감동하고 화하는 것이고,

39) 朱熹, 『詩集傳』, 「小雅·蓼蕭」, “諸侯朝于天子, 天子與之燕, 以示慈惠. 故歌此詩.”

40) 朱熹, 『大學章句』, 9章,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民, 法之也.”

推己는 도리를 미루어 나가 확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었다.<sup>41)</sup>

教化는 의미상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 세 편의 인용시들을 볼 때, 가장 교화하기 어려운 夫婦를 먼저 내세우고 이어 兄弟로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鳴鳩」를 통해 一家 전체에 대한 말을 함으로써 齊家是 修身에 달려 있고 治國은 齊家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여 끝맺음을 하고 있다.

결국 齊家·治國章에서는 引詩를 통해, 治國은 齊家에 달려 있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난 후 「桃夭」를 전체적으로 인용하여 齊家の 시작인 婚姻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어서 「蓼蕭」를 斷章取義하여 형제간의 우애 또한 齊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 뒤에 「鳴鳩」 또한 斷章取義해서 威儀가 어그러지지 않아야 父子兄弟는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典範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하고 마지막으로 治國은 齊家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한 번 더 서술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齊家·治國章은 齊家 및 治國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과 함께 그 주장을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증폭하기 위한 매개체로 詩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 V. 治國·平天下章과 詩 引用

『大學』의 마지막 章句인 10장은 治國·平天下章으로 지도자의 絜矩之道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23節로 구성되어 『大學』에서 차

41) 朱熹, 『大學章句』, 9章, 小註, “蓋天下之未易化者, 婦人, 而人情之每易失者, 兄弟. 齊家而能使之子之宜家, 兄弟之相宜, 則家無不齊者矣. 宜乎其儀不忒, 而足以正是四國也. 自修身而齊家, 自齊家而治國, 而平天下, 有二道焉. 一是化, 一是推, 化者, 自身教而動化也, 推者, 推此道而擴充之也. 故, 此一章並含兩意”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章句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平天下가 治國을 전제로 함을 직접 서술하고 그 뒤를 이어 세 편의 시를 연달아 인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書經』과 『國語』, 『禮記』 등의 말을 인용하여 그 주장의 논리적 전거를 강화하고 있다.

治國·平天下章에서 인용한 詩는 小雅 2편과 大雅 1편으로, 小雅에서는 「南山有臺」와 「節南山」을, 大雅에서는 「文王」을 斷章取義하여 다시 인용한다. 먼저 『大學』의 傳文을 통해 「小雅·南山有臺」에서 인용한 詩句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경』에 이르기를 “화락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이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함을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 하는 것이다.<sup>42)</sup>

「小雅·南山有臺」는 본래 燕饗에 통용하는 음악의 가사로 “남산에는杞나무가 있고 북산에는 오얏나무가 있도다. 화락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화락한 군자여,德音이 그치지 않는다.”<sup>43)</sup>라 하여 그 君子의 德을 찬미한 시이다. 『毛序』에서는 “賢者를 얻음을 즐거워한 시이니, 현자를 얻으면 국가를 잘 다스려 태평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sup>44)</sup>고 하여 好賢의 즐거움을 읊은 시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大學』의 治國·平天下章에서는 이 시구 중 ‘樂只君子, 民之父母’만을 斷章取義하여 지도자가 絜矩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이해하고, 상대방을 자식 사랑하듯 한다면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부모처럼 여기고 따른다는 平天下의 기본적인 논리를 강조하며, 平天下의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42) 朱熹, 『大學章句』, 10章,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43) 朱熹, 『詩集傳』, 「小雅·南山有臺」, “南山有杞, 北山有李. 樂只君子, 民之父母. 樂只君子, 德音不已.”

44) 『毛序』, 「小雅·南山有臺」, “南山有臺, 樂得賢也, 得賢則能爲邦家, 立太平之基矣.”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小雅·節南山」을 斷章取義하여 絜矩의 방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꺾아지른 저 남산이여, 돌이 높고 높구나. 험험한 태사 운씨여, 백성들이 모두 너를 본다.” 하였으니, 국가를 소유한 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되니, 편벽되면 천하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sup>45)</sup>

「小雅·節南山」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여기에서는 8구로 이루어진 제1장의 시구 중 네 구(1~4구)만을 인용하고 있다. 윗자리에 있는 지도자는 사람들이 보고 우러르는 바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大學』에서는 周나라 太師였던 尹氏가 사납고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한 역사적 실례를 들어, 만일 絜矩하지 못해서 好惡가 私적으로 치우친다면 그 누구라도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또한 여기에 덧붙여 세 번째로 「大雅·文王」을 斷章取義의 방식으로 인용하여, 은나라를 거울로 삼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은나라가 민중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상제를 짝했었다. 그러하니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어다. 큰 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으니,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씀한 것이다.<sup>47)</sup>

이 治國·平天下章에서 인용된 시는 총 7장으로 이루어진 「大雅·文

45) 朱熹, 『大學章句』, 10章, “詩云, 節彼南山, 維石巖巖. 赫赫師尹, 民具爾瞻, 有國者, 不可以不慎, 辟則爲天下僂矣.”

46) 朱熹, 『大學章句』, 10章, 集註, “在上者, 人所瞻仰, 不可不謹. 若不能絜矩, 而好惡, 徇於一己之偏, 則身弑國亡, 爲天下之大戮矣.” 참조

47) 朱熹, 『大學章句』, 10章,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儀監于殷, 峻命不易, 道得衆則得國, 失衆失國.”

王』의 시구 중 제6장인데, 그 중 네 구절(5~8구)을 斷章取義의 방식으로 인용하여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결국 民衆 다수의 民心을 얻을 수 있는가가 지도자로서 成敗의 관건이 된다는 것인데, 지도자가 民心을 얻었을 때는 그 집단의 대표자로서 하늘과 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民心을 잃었을 때는 天命을 보전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음을 은나라의 실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傳文 다음에 이어지는 『大學』의 글은, 治國·平天下章에서 인용한 세 편의 시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德을 삼가는 것이니, 德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이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에 씬이 있는 것이다.<sup>48)</sup>

여기에서 ‘德’은 明德이며, ‘德을 삼간다.’는 것은 明明德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明明德의 지도자는 저절로 得衆, 得國을 하게 되고 財用의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大學』의 논리적 체계는 明明德의 문제가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결국 修身論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또한 이 修身論은 明明德과 不可分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新民, 止於至善의 治人論과 하나로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모는 修己治人の 典範인 文王이 자주 언급된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大學』에서 인용한 총 12편의 『詩經』 시들 중 「文王」의 내용이 세 번에 걸쳐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인용시의 시작과 大尾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겠다. 결국 『大學』의 治國·平天下章에서 인용된 『詩經』의 시들은 斷章取義의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그 본래적 의미와는 별개로 修己治인과 연관되어 그 증험을 검증하

48) 朱熹, 『大學章句』, 10章, “是故, 君子, 先慎乎德, 有德, 此有人, 有人, 此有土, 有土, 此有財, 有財, 此有用.”

거나 반대의 상황을 경고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 VI. 結論

지금까지 集註와 小註를 중심으로 『大學』에 인용된 『詩經』의 시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 시들이 『大學』의 修己治人的 논리 구조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大學』의 2장인 新民章에서는 修己治人的 典範이라 할 수 있는 文王을 찬양한 「大雅·文王」을 斷章取義의 형식으로 引用하여, ‘明明德’과 ‘新民’, ‘止於至善’의 三綱領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되도록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大學』의 3장인 止於至善章은 『詩經』의 시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章句로, 「商頌·玄鳥」와 「小雅·緝蠻」, 「大雅·文王」과 「衛風·淇澳」, 「周頌·烈文」 등 5편의 시들을 인용하여 ‘머물름’과 ‘德目’, ‘공효’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止於至善章은 총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詩句만을 인용해서 修己治人的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매우 정밀하며,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어 『大學』에서 이 章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중요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인간을 위시하여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머물러야 할 至善의 경지가 있으니, 이에 따라 사람도 머물러야 할 至善의 경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 실질적인 경지를 총목과 세목으로 지적하고, 切磋琢磨라는 止至於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이 前代에 이어 받은 위대한 정신과 업적 등을 계승하고, 이 역사적 위업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止於至善章은 「玄鳥」와 「緝蠻」, 「文王」, 「淇澳」, 「烈文」의 시를 의도적으로 斷章取義하거나 통째로 한 章을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머물러야 할 높은 도덕적 경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引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大學』의 9장인 齊家·治國章에서는 引詩를 통해, 治國은 齊家에 달려 있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난 후 「桃夭」를 전체적으로 인용하여 齊家의 시작인 婚姻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어서 「蓼蕭」를 斷章取義하여 형제간의 우애 또한 齊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 뒤에 「鴈鳩」 또한 斷章取義의 방식으로 인용해서 威儀가 어그러지지 않아야 父子兄弟는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典範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하고, 마지막으로 治國은 齊家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한 번 더 서술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齊家·治國章은 齊家 및 治國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과 함께 그 주장을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증폭하기 위한 매개체로 詩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10장이자 마지막 章句인 治國·平天下章은, 지도자의 絜矩之道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23節로 구성되어 『大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小雅·南山有臺」와 「小雅·節南山」, 「大雅·文王」 등 세 편의 『詩經』 시를 인용하여 治國이 平天下의 전제가 됨을 비유적으로 밝히고 있다.

『大學』의 논리적 체계는 明明德의 문제가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결국 修身論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또한 이 修身論은 明明德과 不可分の 관계를 가지고 있는 新民, 止於至善의 治人論과 하나로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모는 修己治人の 典範인 文王이 자주 언급된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大學』에서 인용한 총 12편의 『詩經』 시들 중 「文王」의 내용이 세 번에 걸쳐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인용시의 시작과 大尾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겠다.

결국 『大學』에 인용된 『詩經』의 시들은 修己治人の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었으며, 몇몇 핵심적인 의미 강화가 필요한 章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용시들이 『詩經』의 본의와 달리 斷章取義하여 인용되고 있다. 이들은 文王을 修己治人の 典範으로 보는 전통적 聖人觀을 계승하고 있는데, 朱子の 集註와 小註는 이런 목적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 文獻>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禮記』 『國語』 『周禮』  
孔穎達, 『毛詩正義』.  
司馬遷, 『史記』.  
左丘明, 『春秋左傳』.  
朱 熹, 『詩集傳』.  
朱在編, 『朱文公文集』.  
민족문화문고, 『四書大全』.

- 권정안, 「詩經 周南의 儒學的 理解, <關雎>, <葛覃>, <卷耳>의 修身論을 중심으로」, 『儒敎思想文化研究』 제54집, 韓國儒敎學會, 2013, 12.
- 金興奎,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朴茂瑛, 「白湖 尹鑄의 詩經論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제9·10합집, 한국한문학회, 1987.
- 沈慶昊, 「朝鮮 詩經學에 관한 小考」, 『中語中文學』 제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87.
- , 「茶山の 國風論」, 『韓國學報』 14, 일지사, 1988.
- 李康範, 「漢代 今古文 詩經學 研究」,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李炳燦, 「韓國의 詩經論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李再薰,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任侑旻, 「徐命膺의 文學觀 및 詩經論」, 『한국한문학연구』 제9·10합집, 한국한문학회, 1987.
- 陳禮淑, 「陽村 權近의 『詩淺見錄』 研究」,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崔錫起, 「星湖 李瀼의 詩經學」,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Abstract

*A Study on Poetry Cited in 『Daehak(大學)』 - Focusing on  
Jipju(集註) and Soju(小註) / Jin Ye Suk\**

This study considered the poems of 『Sigyeong(詩經)』 cited in 『Daehak(大學)』 focusing on Jipju(集註) and Soju(小註), and examined which role these poems are playing in the Sugichiin(修己治人)-based logical structure in 『Daehak』. First of all, the chapter of Shinmin(新民) is being declared that Samgangryeong(三綱領) in Myeongmyeongdeok(明明德), Shinmin(新民), Jieojiseon(止於至善) is mutually connected naturally and is ultimately united by quoting a poem that praised King Mun who can be said to be Jeonbeom(典範) of Sugichiin(修己治人). Sequentially, the chapter of Jieojiseon(止於至善) is characterized by developing the logic of Sugichiin by citing just a poetic line in all without a special argument. By the way, its logic is proposed very precisely, gradually and minutely, thereby making it available for guessing that the status of possessing in 『Daehak(大學)』 is very important.

The chapter of Jega(齊家) · Chiguk(治國) is being clarified that Chiguk(治國) is having a premise as Jega(齊家) by consecutively citing three poems. There is an emphasis on which Jega(齊家) relies upon Sushin(修身) and on which Chiguk(治國) depends on Jega(齊家) because enlightenment proceeds with being expanded into the outside from the inside. The chapter of Chiguk(治國) · Pyeongcheonha(平天下) is being mentioned in detail on a leader's Hyeolgujido(絜矩之道). As a very big Jangu(章句, Chapters and Sentences) of possessing in 『Daehak(大學)』, it is figuratively clarifying that Chiguk(治

---

\* Instruct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 jinyesuk@naver.com

國) becomes a premise of Pyeongcheonha(平天下) by quoting three poems of Sigyeong(詩經).

A logical system in 『Daehak(大學)』 is being most founded a problem of Myeongmyeongdeok(明明德). This results in Sushinron(修身論). Also, this Sushinron(修身論) is united to be interlinked with Chiinron(治人論) in Shinmin(新民) and Jieojiseon(止於至善) that have an inseparable relation to Myeongmyeongdeok(明明德). Ultimately, the poems in Sigyeong(詩經) quoted in Daehak(大學) were cite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point of Sugichiin(修己治人). It is concentrated on the chapter that requires the reinforcement of a few core meanings. In addition, most of the cited poems were quoted on the basis of Danjangchwiui(斷章取義)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in Sigyeong(詩經). It is succeeding to the traditional saint notion[聖人觀], which regards King Mun as Jeonbeom(典範) of Sugichiin(修己治人). Zhi Zi's Jipju(集註) and Soju(小註) is what is analyzing or describing its meaning by intensively highlighting these objectives.

**【Key words】** Daehak(大學), Sigyeong(詩經), Myeongmyeongdeok(明明德), Shinmin(新民), Jieojiseon(止於至善), Samgangryeong(三綱領), Paljomok(八條目), Sugichiinron(修己治人論)

투고일 : 11월 11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